

금호타이어 금융거래 막혔다... 직원 급여·납품대금 지급 중지

비정규직 노조, 결국 회사 운영자금통장 압류

‘사상 초유’ 경영악화 가속·유동성 위기 직원
직원 1만여 명·설비 협력업체 500여 곳 타격
사측 현실 대안없어 ‘답답’... 지역경제 큰 파장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과 관련<광주일보 2020년 7월 29일자 14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법인계좌가 압류된 금호타이어는 심각한 준폐 위기에 처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계좌 압류로 회사 운영자금은 발이 묶였고, 국내외 1만여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사태에 처했다. 여기에 설비

협력업체 500여곳을 비롯해 모든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금융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추후 금호타이어는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자금 회수 압박을 받는 것과 함께 신용도 하락에 이은 추가하락, 영업망 혼란 등 최악의 경우 회사의 생존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적자를 면치 못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회사를 상대로 협상을 이어가기는

커녕,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압류 소송을 거는 등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비정규직 노조의 행태를 지적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금호타이어 내부 직원들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도 비정규직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30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날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금호타이어 법인계좌를 압류했다. 지난 27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1심 판결에 의한 임금 차액과 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사 자금이 모두 묶였다. 앞서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정규직 사원과 임금차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대상자는 613명으로, 금호타이어가 지급해야 할 임금차액은 250억원에 이른다. 이후 금호타이어는 법적인 최종판단을 위해 항소를 제기했고, 노·사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특별협의체를 통해 임금차액의 10% 상당을 우선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비정규직지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압류를 신청했다. 채권압류에는 조합원 414명이 참여, 이에 대한 임금차액은 204억여원이다. 비정규직지회에 지급할 임금차액 204억원은 금호타이어 영업이익의 37%에 해당

할 정도로, 올해 1분기 184억원의 적자와도 맞먹는 금액이다. 최근 사무직 유급휴직을 시행하고 지난 2월과 4월 휴무를 진행하는 등 섣달까지 반복돼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황에서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도저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다면 공탁금이라고 걸겠으나, 코로나19라는 악재를 만난 탓에 그럴 만한 여유도 없던 게 사실이다. 또 2분기에는 경영악화가 심해져 매출과 영업이익의 하락 폭은 더 커지는 등 금호타이어의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이번 사태로 부도도 처할 때 지역 경제계의 타격도 불가피하다는 점에 서 우려도 크다. 비정규직지회의 이런 조치를 비난하는

지역사회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회사의 법인통장을 압류하는 경우는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의 근로자들이 자신의 급여를 보장받기 위해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로 여겨진다. 현재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고, 임금차액이 당장 본인들의 생계에 직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이번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호타이어 근로자인 정규직 노조 중 일부 지회조차 이들의 이런 요구가 과도하다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지회의 압류집행에 대해 마땅한 대안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수만여명의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이 일자리를 잃거나 함께 파산하는 등 지역경제 여파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3시간10분

女 가사노동시간 ‘男 4배’

여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보다 4배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잠을 자거나 외출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은 늘어나고, 일하거나 학습하는 데 쓰는 시간은 줄었다. 이 같은 내용은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9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평일 중남자의 가사노동시간은 48분이었다. 5년 전보다 9분 증가했지만 여전히 1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여자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10분이다. 5년 전보다 12분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시간을 가사에 할애하고 있다. 성별 간 가사노동시간 차이는 4배에 달했다. 15세 이상 국민은 평일에 평균적으로 4시간 3분 동안 일(구직활동 포함)을 했다. 이들 중 평일에 일한 사람 비율은 60.6%였다. 평일에 일한 사람의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 41분이다. 국민 절반 이상인 54.4%는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장 일(52.2%)을 가장 많이 줄이고 싶어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0세 이상 국민이 수면·식사 등을 위해 쓴 필수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34분으로 5년 전보다 20분 늘었다. 특히 수면 시간이 8시간12분으로 5년 전보다 13분 늘고, 외출관리 등 개인 유지 시간도 1시간27분으로 9분 증가했다. 이들 중 평일에 일한 사람 비율은 7시간38분으로 5년 전보다 19분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장마철 건조기 할인 30일 (주)광주신세계 직원들이 8층 생활전문관에서 LG전자 건조기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장마철 들어 건조기를 찾는 고객이 평소보다 3배 늘면서 관련 제품을 할인기에 내놓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중진공, 중기 온라인·비대면 해외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과 비대면 방식으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중진공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 연계를 통한 온라인 수출 지원 확대와 온라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해외 거점 활용 비대면 해외 진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진공은 국내 인기 상품을 세계 각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에 즉시 등록·판매가 가능하도록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을 연계하는 ‘온라인 수출 패스트트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별도의 판매 계정 개설 없이 여러 글로벌 플랫폼에서 상품을 신속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는 게 중진공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역량 있는 국내 플랫폼과 주요 수출국별 대표 플랫폼을 대상으로 연계 협의를 중이다. 중진공은 다음 달 국내외 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조달청 수출 전략기업 육성 사업 등과 연계해 전 과정을 돕는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67.01 (+3.85)	↓ 금리 (국고채 3년)	0.799 (-0.012)
↑ 코스닥	814.19 (+5.60)	↑ 환율 (USD)	1194.40 (+1.30)

‘한국판 뉴딜’ 경기부양책에도 광주·전남 중기 경기전망 또 하락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이 또 떨어졌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광주·전남 중소기업체 191개를 대상으로 ‘2020년 8월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전월(74.9)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72.0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최근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들은 아직까지 경기회복을 어렵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최근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불안심리로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지역별로 광주가 전월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71.7로 나타났고, 전남은 전월과 동일한 72.5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월 대비 7.3포인트 상승한 72.6을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보인 반면, 비제조업은 10.9포인트나 하락한 71.5로 나타나 다소 불안한 전망이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전망(73.3→72.0), 경상이익전망(68.9→67.0) 및 자금사정전망(68.1→66.0)은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반면 수출전망(44.4→47.4)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크게 하락한 뒤 전월 반등에 이어 다시 23.0포인트 상승하면서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수준전망(108.3→105.8)은 전월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 인력수요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

“10년 내 곡물시장 위기” 농업 전문가 75%

향후 10년 이내에 2007-2008년과 같은 곡물시장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응답률이 7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곡물 도입 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곡물 재고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수출 제한 정책이 맞물려 국제 곡물 위기가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